



‘무주공산’... 여·야 후보들 물밑 주도권 경쟁 본격

제8회 지방선거 출마 예상 후보 및 대결 구도 ① 제주도지사

원희룡 전 제주지사 불출마... 후보 10여 명 출마 준비
대선 이후 후보군 정리 예측... 당내 경선 등 선출 관심

지난해 원희룡 제주지사의 불출마로 무주공산이 된 ‘제주지사 자리’를 놓고 10여명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송재호·오영훈·위성곤 국회의원과 문대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김태석 제주도의원 등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이 가운데 송 의원은 현재 제주도당위원장과 이재명 후보 캠프 제주지역선대본부장을 맡아 대선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도내 현안에 대한 여론수렴과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 등을 개최하면서 지지세력을 결집해 나가고 있다.

오영훈 의원은 지난해 11월 28일 이재명 대선 후보 비서실장으로 임명된후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정치적 감각과 중량감을 키워나가고 있다. 특히 이낙연 전 당대표와 제주 4·3특별법 개정을 주도해 정치력과 추진력을 입증했다.

위성곤 의원은 이재명 캠프 총괄특보수석 부단장을 맡아 대선을 돕고 있으며 도지사 선거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문대림 이사장도 재도전을 준비하고 있다. 유튜브 ‘문대림 TV’를 통해 자신이 구상하

는 정책을 알리고 있으며, 유권자와 비대면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제주지사 출마를 위해 이달말 시작하고 일단 대선 캠프에 참여할 계획이다.

제주도의회 의장을 역임한 3선의 김태석 도의원도 출마를 선언해 보폭을 넓히고 있다. 대선과 연계한 제주발전 공약을 구상중이다.

▶국민의힘=민주당 후보들의 움직임에 비해 국민의 힘 후보들은 조용한 편이다.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한 문성유 전 한국자산공사 사장이 지난해 12월 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보폭을 넓히고 있다. ‘문성유TV’ 유튜브를 통해 도민들과 비대면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문 전 사장은 현 정부에서 한국자산공사 사장으로 발탁되는 수혜를 입었다. 이런 그가 현 정부에 등을 돌리고 지난해 12월 10일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면서 다소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 안게 됐다. 중앙 부처 근무경험이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으나 현 정부와 대립각을 세운 것은 단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선거과정에서 이를 어떻게 극복할지 도민들의 관심사이다.

허향진 제주도당 위원장도 유력 후보군에

다. 제주대학교 총장 출신인 허 위원장은 김태환 도지사 시절 제주연구원을 역임하면서 도정의 정책수립 및 결정에 깊게 관여를 했다. 현재 제주도당에 원희룡 전 제주지사 캠프에서 활동을 했던 인사들이 대거 포진해 있어 직·간접적으로 원 전지사와 교감을 나누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윤석열 후보 국민캠프 제주선대위원장을 맡은 고정실 전 제주시장과 안동우 제주시장 역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장성철 전 도당위원장도 출마에 관심을 갖고 있다. 장 전위원장은 지난해 8월 국민의힘 지도부로부터 제주도당이 사고당으로 지정당하는 수모를 당했으나 최근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조직총괄 호남·제주본부장으로 임명돼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유튜브 ‘장성철 TV’를 통해 유권자와 소통을 넓혀 나가고 있다. 김용철 회계사도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기타 범야권 후보=정의당 제주도당 고병수 전 도당위원장과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 박찬식 공동대표가 출마를 결심했다. 박찬식 대표는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 상황실장을 역임했으며 환경보전기여금인 일도세(관광객 1인당 1만원) 도입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원희룡 전지사와 같은 중문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 동문이다. 올해 지방선거를 통해 제주가치가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부상할지 아니면 기존 정당에 흡수될지 관심사이다.

부순정 제주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당



고정실



고병수



김용철



김우남



김태석



문대림



문성유



박찬식



부순정



송재호



안동우



오영훈



위성곤



장성철



허향진

원 투표를 통해 도지사 후보로 확정됐다.

한국마사회장을 역임한 김우남 전 국회의원도 거론되고 있다. 자신의 측근 채용지시를 거부한 한국마사회 직원에서 욕설과 막말을 해서 해임이 된후 제주에 내려와 정치재개를 모색하고 있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 상대로 소송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제주지사 후보군은 내년 3월 9일 대선 이후 치러질 예정인 당내 경선을 통해 정

리될 것으로 보인다.

대선판에서의 활약이 내년 지방선거 공천권 경쟁에서 우위로 이뤄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각 후보들은 대선에 집중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전략공천설을 흘리고 있다. 현재 물밑 주도권 경쟁이 시작된 것이다. 당내 후보 경선을 통해 최종 후보가 결정될 것인지, 아니면 전략공천을 통해 후보가 선출될 것인지도 관심사이다.

고대로그자 bigroad@ihalla.com

현직 VS 다자구도... 도전자 단일화 최대 변수

② 제주도교육감

‘3선 도전’ 이석문 수석 여부 관심
설욕전 버르는 고창근-김광수
단일화 현실화·시기 등 주목

현재 다자대결 구도로 그려지는 차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의 주요 관전포인트는 도전자 간의 단일화 여부다. 최근 현직의 이석문 교육감이 ‘3선 도전’ 의지를 표명하면서 ‘현역 대 도전자’ 구도가 짜여진 가운

데 도전자들의 단일화 여부가 향후 선거 판세의 최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와함께 이 교육감이 이른바 ‘3선 피로감’을 넘어 수성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올해 6월 치러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차기 제주교육 수장을 뽑는 제주도교육감 선거 시계도 조금씩 빨라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25일 고창근 전 제주도교육청 교육국장이 거명되던 교육감 선거 출마 예상후보군 가운데 처음으로 공식 출마 선언을 했다.

지난 2014년 교육감 선거에서 낙선의 고배를 마셨던 고 전 국장은 “지난 8년은 극심한 불통의 시간이었다”면서 “진정한 소통

을 시작하겠다. 새로운 제주교육의 미래를 열어가겠다”며 설욕전을 버르고 있다.

이어 12월 22일 이 교육감이 송년 및 신년인터뷰에서 “기회가 된다면 겸허히 도민들과 함께 걸어가고 싶다”며 출마 의지를 드러냈다. 지금까지 미래 교육의 기반을 충실히 만들어진 만큼 정책의 연속성을 강조하며 ‘3선 도전’ 의사를 밝혔다.

지난 2018년 선거에서 접전 끝 석패한 김광수 전 교육의원은 조만간 재도전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와함께 현재 초선의 김장영·김창식 교육의원도 출마 뜻을 밝히고 있어 출마 선언으로 이어질 지 주목되고 있다. 강덕부 전



강덕부



고창근



김광수



김장영



김창식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도 현재 출마를 고심중이다.

‘현직 프리미엄’을 등에 업은 현역의 수성과 도전자의 공성 구도에서 판세를 흔들 최대 변수로는 도전자들의 연대 및 단일화 여부가 꼽힌다. ‘인물 경쟁력’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현역’의 아성을 깨기

위해 중량감 있는 대항마가 필요한 상황에서 다자 대결보다 양자 대결이 승산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현재로선 도전자들의 단일화가 현실화 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단일화 쉼법’이 제각각일 수밖에 없는 만큼 성사 여부부터 시기, 방식 등 단일화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은지기자 eioh@ihalla.com

謹賀新年

제주도민 여러분!

새해 永福 많이 받으세요.

지난 한 해 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 임인년(壬寅年) 새해에도 변함없이 고객 감동과
희망찬 제주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제주의 기업으로
늘 제주도민 여러분 곁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레미콘

世紀産業株式會社

(본사) 제주시 고전길 6 (이도일동)
757-6866~7
(공장) 제주시 고내로 13길 22
799-0045, 3058

칼라콘크리트

世紀레미콘株式會社

(본사) 제주시 고전길 6 (이도일동)
753-5911
(공장) 서귀포시 소보리당로 16번길 125(상예동)
738-2632~3

칼라투수콘